

Issue Monitor

핀테크, 앞서가는 중국 따라가는 한국

삼성KPMG경제연구원

July 2015



핀테크, 앞서가는 중국 따라가는 한국

The contacts at Samjong KPMG in connection with this report are:

김범석
경제연구원
원장
Tel: + 82 2 2112 0770
edwardkim@kr.kpmg.com

이광열
경제연구원
상무이사
Tel: + 82 2 2112 0062
kwangyeolyi@kr.kpmg.com

김기범
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Tel: + 82 2 2112 7600
kkim20@kr.kpmg.com

박광빈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Tel: + 82 2 2112 3849
kwangbinpark@kr.kpmg.com

<i>Contents</i>	<i>Page</i>
Executive summary	2
핀테크, 금융산업을 흔들다	3
중국 핀테크 산업	5
중국의 주요 핀테크 기업	7
중국 핀테크의 자생적 성장배경	12
국내 핀테크의 현재	17
국내 핀테크의 미래	21
시사점	23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주)과 관계회사(이하"삼성")가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시장, 회사, 자산, 또는 사업에 대한 삼성KPMG의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검토되지 않았으며, 삼성은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삼성은 본 보고서에 포함된 어떠한 정보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증이나 보장을 제공하지 않으며,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원래 목적과 다른 목적 또는 의도에 따라 본 보고서의 일부 또는 전체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보고서는 삼성KPMG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배포, 인용, 발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핀테크는 소비자의 수요에 의해 자생적으로 성장한 결과 삶의 일부가 되고 있다. 중국은 핀테크를 통해 은행에서 은행서비스를 시키고, 이를 소비자 이익으로 환원시키고 있다. 이처럼 중국 핀테크 산업의 성장 배경에는 소비자 요구에 부합한 핀테크 기업들의 전략과 정부의 관심이 주효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통해 본격적인 핀테크 시대를 맞이한 한국은 중국의 핀테크 산업성장을 주목하고, 앞으로 국내 핀테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 핀테크, 금융산업을 흔들다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민첩하게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핀테크는 전통적인 금융산업의 업무영역을 해체시키는 과정(unbundling)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중국 핀테크 산업

- 특히 이러한 해체 과정은 최근 중국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중국의 금융개혁을 촉진하고 있음
- 핀테크 산업은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면서 중국인들의 일상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
- 현재 중국의 핀테크는 제3자 결제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며, 자산관리, P2P 대출중개,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영역을 해체시키고 있음

■ 중국 핀테크의 자생적 성장배경

- 중국은 정부 주도의 금융 체제에 따른 금융시장의 비정상적인 상황, 소매시장에서 소비자-판매자간 신뢰 부재, 신용카드 보급률 저조 라는 세 가지 토양에서 핀테크가 자생적으로 성장하여 왔음
- 또한 모바일 인터넷사용자 급증, 핀테크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과 지원은 중국의 핀테크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함

■ 국내 핀테크의 현재

- IT 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는 핀테크 발전을 위한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임. 사실상 기존의 핀테크로 볼 수 있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의 수준이 매우 높은 편임
-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기존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서비스를 해체하는 과정으로서의 '핀테크'에 대한 국내 시장 수요는 비교적 높지 않은 상황이었음.
- 정부는 핀테크의 글로벌 추세 등을 감안하여 핀테크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인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함

■ 국내 핀테크의 미래

- 국내 핀테크 활성화는 여러 해외 사례들과 유사하게 대형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을 기반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기존 대형 금융기관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전문은행들과 ICT 기업 들 사이에 경쟁과 협업을 통해 시장이 조성되어 갈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국내 핀테크 시장이 경쟁력을 갖추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규제완화를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핀테크, 앞서가는 중국 따라가는 한국

핀테크,
금융산업을 흔들다

“Banking is necessary, banks are not”(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행 서비스이지 은행이 아니다).



핀테크의 핵심은
‘unbundling’

이는 금융업에서
금융서비스가
해체되는 과정임

이는 Microsoft의 빌게이츠 회장이 20년 전에 한 말이다(Bill Gates, 1994). 2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빌게이츠 회장의 발언은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로 부상한 핀테크는 더 빠르고 더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금융서비스 부분을 해체하는 중이다. 이러한 현상을 ‘unbundling’이라고 부른다. ‘unbundling’은 지급결제, 송금, 대출, 자산관리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기존 금융회사들이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수행했던 금융서비스 영역을 인터넷 등 정보 네트워크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의 적용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이제 금융산업은 unbundling으로 인해 핀테크라는 새로운 경쟁자와 경쟁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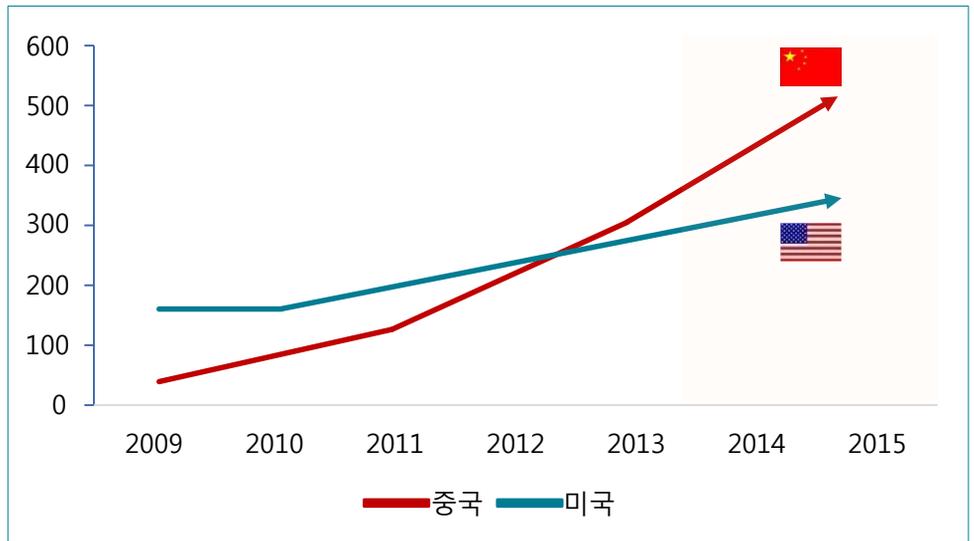
<중국 금융서비스의 Unbundling>

The image shows a screenshot of the Bank of Communications website. At the top, there are logos for the bank and several fintech partners: Lufax.com, Hongling Capital (红岭创投), and Wenzhou Dai (温州贷).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Home', 'Personal Banking', 'Corporate Banking', 'International Banking', and 'E-Banking'. Under 'E-Banking', three sub-categories are circled in red: 'Bank Card', 'Personal Lending', and 'Wealth Management'. Below this, there are sections for 'Personal Banking' with a list of services (Personal Savings, Bank Card, Personal Lending, Wealth Management), 'Personal Savings' (Two-in-one Account, Personal Savings), and 'Personal Lending' (Personal Loan, Personal Housing). At the bottom, there are logos for Alipay.com (支付宝) and Tenpay.com (财付通).

핀테크, 앞서가는 중국 따라가는 한국

최근 핀테크에 의해 기존 금융서비스의 해체(unbundling)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2011년 이후에 핀테크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미국과 유럽에 비해 시작이 늦었으며 아직까지 전체 규모도 작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 3자 결제시장에서는 이미 미국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그 밖에 대출, 송금, 자산관리 영역 등의 방면에서 핀테크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 VS 미국: 제 3자 결제시장>



Source: KPMG analysis of US and Chinese e-commerce data from Statista, Bain & Company

현재 중국의 핀테크는 정부 정책보다는 수요를 기반으로 하여 자생적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발전의 과정에서, 중국 금융산업은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과거 구조에서 시장경쟁 구조로 변화 중이다.

본 보고서는 중국의 핀테크 산업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첫째, 중국의 주요 핀테크 영역인 제 3자 결제시장, 온라인 펀드, P2P대출 시장을 살펴보고, 각 영역별 주요 핀테크 기업들을 조사했다. 두 번째로는 중국 핀테크 산업이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구조적인 요인들을 찾아봤다. 이는 기업과 시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중국 핀테크 산업의 오늘을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세 번째로, 국내 핀테크의 현황을 점검하며 핀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살펴보았다. 네 번째로,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토대로 향후 국내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전망을 간략하게 기술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핀테크가 활성화 되기 위한 요소들을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핀테크, 앞서가는 중국 따라가는 한국

중국의 핀테크 산업

중국에는 '핀테크'라는 단어가 없다

국내 언론과 미디어에서 핀테크는 단골손님처럼 자주 다뤄지고, 정부와 금융당국도 연일 핀테크 활성화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핀테크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에서 '핀테크'라는 단어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핀테크'가 일상에 스며들어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닌 생활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핀테크가 가져온 중국인의 삶의 변화를 보여준다.

중국인들에게
핀테크는 일상 속의
도구로 깊게 뿌리를
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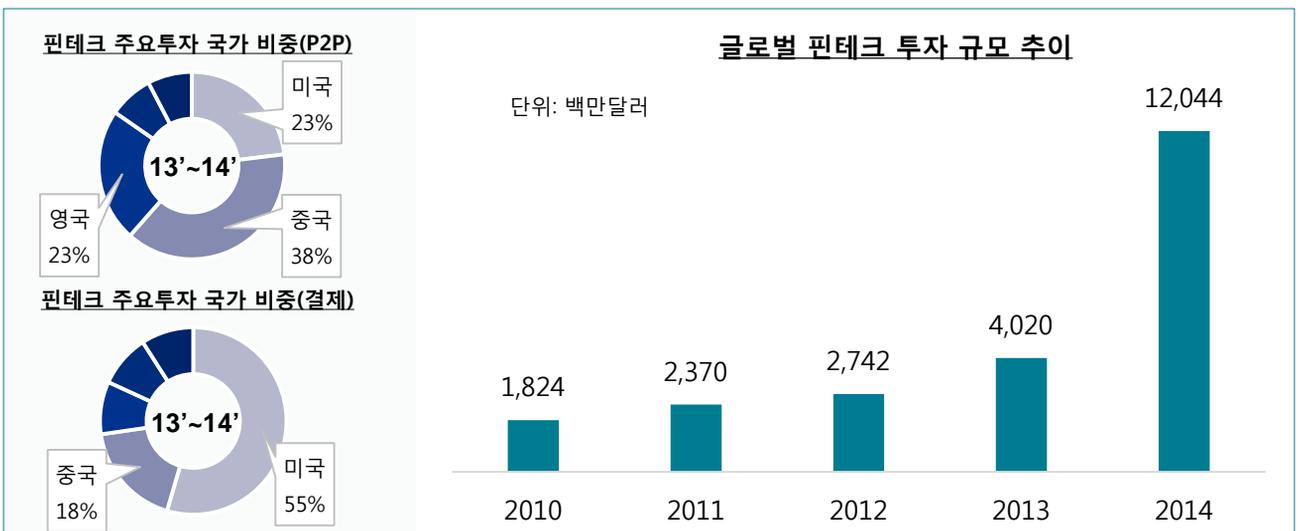
“상해에 사는 27살 회사원 마오는 여자친구와의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약속장소로 이동했다. 이동수단으로 택시를 이용했는데, 목적지에 도착해서 휴대폰을 통해 알리페이로 택시비를 결제했다. 한 손에는 여자친구를 위한 선물이 들려 있었다. 회사 생활이 바빠서 급하게 텐센트에서 QR코드 입력을 통해 구매한 스카프였다. 내심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까 걱정은 되었지만, 구매결정을 클릭하지 않아, 언젠가 알리페이를 통해 환불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다.”

위의 사례처럼 핀테크는 중국인의 일상을 더 편리하고 더 빠르게 변화시키며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핀테크 신흥강국, 중국

글로벌 핀테크 산업은 최근 5년간 미국,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핀테크 산업에 투자된 금액만 해도 전년대비 3배 가량 증가한 120억 달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유럽보다 늦은 2012년에 본격적으로 핀테크를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의 핀테크는 인터넷, 모바일 인구증가와 더불어 제 3자 결제시장, P2P 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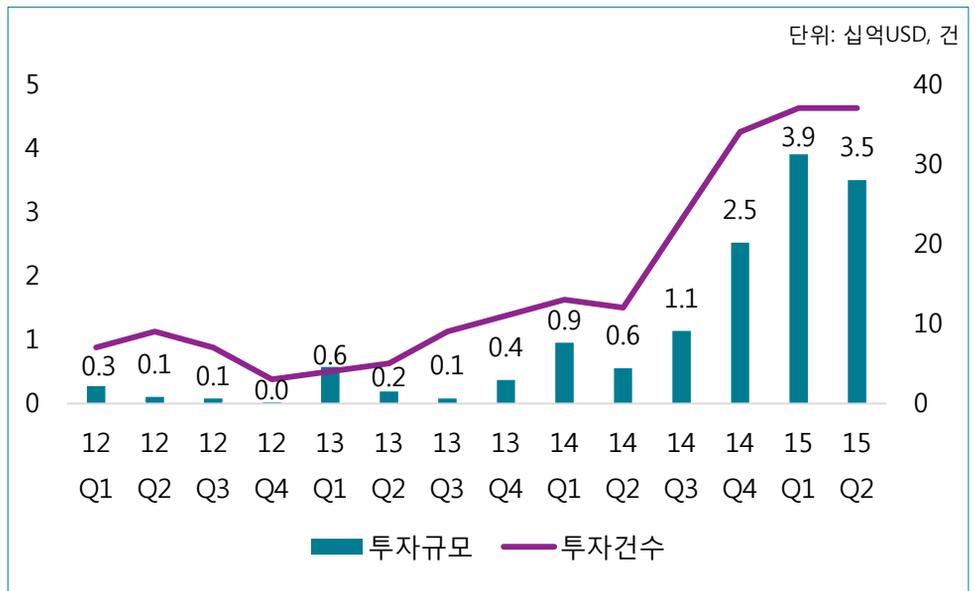
Source: CB Insight

핀테크, 앞서가는 중국 따라가는 한국

중국의 핀테크 투자는 2013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3년 1분기 6억 달러에 그치던 중국의 핀테크 투자는 2015년 1분기 39억 달러를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현재 중국의 핀테크는 제 3자 결제시장 외에도 자산관리, P2P대출중개, 인터넷 전문은행, 클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영역을 허물고 있다.

<중국의 핀테크 투자규모 변화 추이>



Note: 중국의 핀테크 산업군을 블룸버그 기준인 7가지 그룹(E-commerce/products, E-commerce/services, E-commerce/ consulting, Internet financial services, Internet security, Application software, Internet content-info/news)으로 분류하여 2012-2015 상반기 투자추이를 조사함. 본 조사에는 7가지 그룹에 대한 지분투자를 중심으로 통계자료를 추출함

Source: Bloomberg, KPMG ERI Analysis



중국의 주요 핀테크 기업

제3자 결제(The third party online payment)

중국 핀테크 산업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시장은 제3자 결제시장이다. 제 3자 결제시장은 크게 온라인 결제시장과 모바일 결제시장으로 구분된다. 전체 결제액 규모는 2012년 7,930억 달러에서 2014년 2조 6,460억 달러로 성장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모바일 결제시장이 2013년 이후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결제시장을 앞질렀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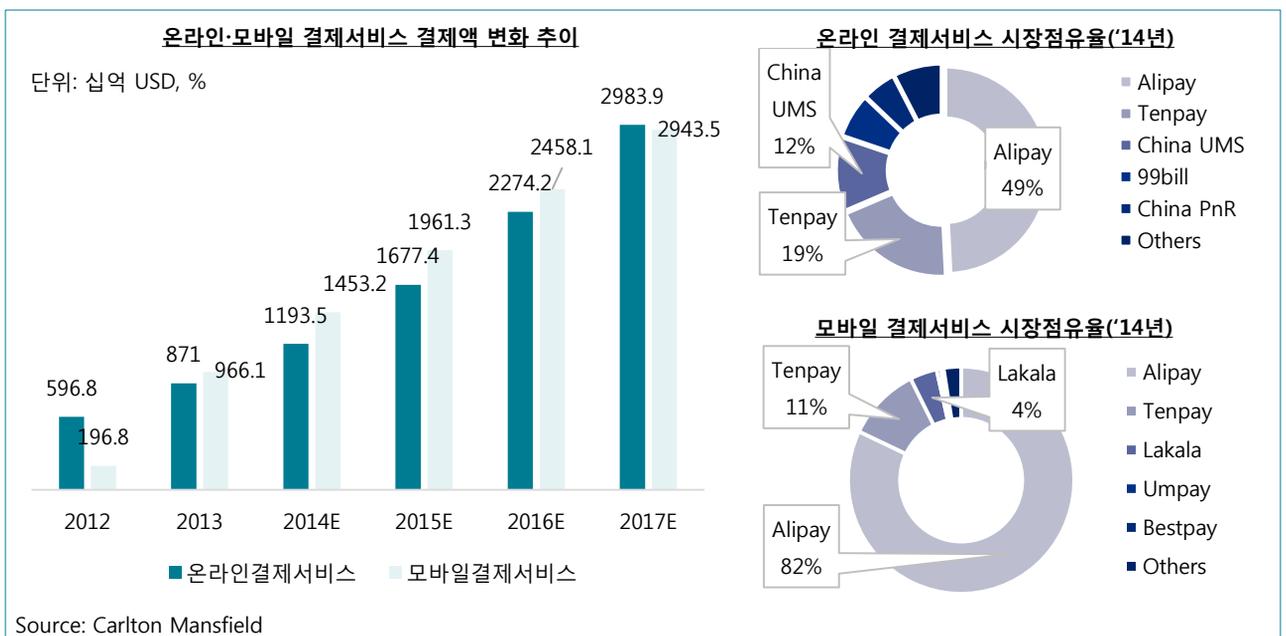
알리페이, 텐페이의
온라인 결제시장
점유율은 68%

2014년 온라인 결제시장에서 알리페이(49%)와 텐페이(19%)의 점유율은 6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리고 모바일 결제시장에서 알리페이는 82.3%로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서 텐페이는 10.6%, 라카라는 3.9%를 기록했다. 주목해야 할 Player는 모바일 결제시장에서 4위 점유율을 기록한 Best Pay이다. 전년대비 100%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다.

제 3자 결제시장에서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China Union Pay의 China UMS이다. China Union Pay은 중국인민은행이 소유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이다. 과거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던 China UMS의 점유율은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성장으로 인해서 2014년 12%로 폭락했다. 전 세계의 핀테크 혁명이 기존 금융의 영역을 허물듯이, 중국 핀테크 기업들도 빠른 속도로 새로운 금융의 영역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최근 은행카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카드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개방했다. 따라서 향후 제3자 결제시장에서의 정부정책이 핀테크 기업과 은행카드사간의 경쟁구도가 어떻게 변화될 지 주목된다.

<중국 제 3자 결제 시장 현황>



핀테크, 앞서가는 중국 따라가는 한국

중국의 제 3자 결제시장에서 주요 기업들은 전체 시장점유율 1~5위를 차지하고 있는 알리페이와 텐페이, China UMS, 99bill, China PnR이다. 알리페이와 텐페이는 전자상거래 기반인 모기업을 토대로 성장했고, 99bill과 China PnR은 독립기업으로서 제 3자 결제시장에 진출했다.

업계 1위인 알리페이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교통요금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결제가 가능하다. 텐페이는 커뮤니케이션 메신저와 연동하여 결제가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은 99bill과 China PnR은 결제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계함으로써 사업을 다각화하며 성장 중이다.

<중국 제 3자 결제 시장 주요 Players>

중국 제 3자 결제 시장					
기업명	알리페이 (Alipay)	텐페이 (TenPay)	인렌 (China UMS)	콰이치엔 (99Bill)	후이푸텐샤 (China PNR)
모기업	알리바바	텐센트	중국인민은행	독립 기업	독립 기업
설립일	2004년 12월	2005년 09월	2002년 03월	2005년	2006년
본사 위치	항저우	선전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시장 점유율	1위 (51%)	2위 (18%)	3위 (11.50%)	4위 (6.60%)	5위 (5%)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범위한 결제 가능 범위(공공, 교통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채팅 QQ와 모바일 채팅 어플 위챗(WeChat) 과 연동, 넓은 고객층을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업을 영위하는 모기업의 고객기반 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 결제 서비스 기업 • 이동화펀드, 보험, 소매금융, 직거래 부문에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펀드 판매를 중국 최초로 출시

Source: 각 사 및 언론 미디어 자료 종합



온라인 펀드(Internet-based Fund)

“
시중 은행 금리
1%에 반해
온라인펀드 4.5~7%
수익률 제공

중국의 금융서비스업은 오랫동안 국영은행이 장악해 왔다. 금융당국이 예금이자를 통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저축률이 높은 중국인들이 받는 시중은행의 예금 이자 수준은 고작 1% 불과했다. 이후 2013년 6월 알리바바가 온라인펀드 상품(MMF)인 위어바오(Yu'E Bao)를 출시하면서, 펀드시장에서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위어바오는 기존 금융서비스 시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7%라는 파격적인 수익률을 고객들에게 돌려줬다. 뿐만 아니라 위어바오는 서비스를 시작한 첫 달에만 5천 만 위안, 10개월 후 5,500억 위안(약 900억 USD)의 자금을 모집하는 기염을 토했다. 나아가 위어바오의 성공은 온라인펀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국 주요 금융상품 비교>

구분	거치기간	평균수익률	제한요인
온라인펀드	없음	4.5~7%	무료수수료, 최대 백만 위안으로 투자제한
양도성 예금증서	1년	3.4%	최소 십만 위안 이상 투자요구
자산관리상품	평균 1개월~2년	3.76~5.5%	약정기간 동안 환매불가
2년 만기 적금	2년	3%	약정기간 동안 환매불가
요구불예금	없음	0.35%	없음

Source: KPMG Global China Practice

은행들이 취급하던 기존의 금융상품들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 펀드의 매력은 확연하다. 평균 수익률에서 양도성예금증서와 2년 만기적금은 3~3.4%, 자산관리상품은 3.76~5.5%로서 7% 수준의 온라인 펀드보다 낮다. 또한 온라인 펀드는 약정된 거치 기간이나 수수료가 없다. 이는 다른 금융상품들에 비해서 온라인 펀드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온라인 펀드를 운영하는 주요 기업들은 알리바바의 위어바오, 텐센트의 리차이통(Li Cai Tong), 바이두의 리차이(LiCai), 징동(360Buy Jing Dong), 쉐닝(Suning)이다. 리차이통은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WeChat)의 3억 명의 고객을 기반으로 펀드 상품을 판매한다. 위챗 고객은 은행 카드가 앱과 연계되어 있어서 쉽게 펀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2013년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한 리차이는 위어바오나 리차이통처럼 모회사의 결제 플랫폼과 연동되지는 않지만 그들보다 다양한 펀드 상품을 판매한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동과 쉐닝은 2014년 상반기에 펀드 상품인 Xiao Jinku와 Qian Bao를 팔기 시작했다. 두 회사는 자사의 전자상거래 웹에 연계한 결제시스템과 구매 기능을 통해 고객들에게 펀드 상품을 제공한다.

핀테크, 앞서가는 중국 따라가는 한국

<중국 온라인펀드 주요 Players>

중국 온라인펀드					
상품명	위어바오	리차이퉁	바이주엔	시엔진바오	링치엔바오
모기업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징둥	수닝
출시일	2013년 06월	2014년 01월	2013년 10월	2014년 03월	2014년 01월
수익률('14기준)	4.1%	4.7%	4.4%	5.1%	4.7%
플랫폼	PC/모바일	모바일	PC/모바일	PC	PC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텐홍 자산 운영과 합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억명 고객기반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과 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이나에셋과 합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rvest Fund, Pengua Fund를 통한 합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F day, Huitianfu Cash 두 개의 운용사 중 유리한 금리를 선택 가능

Source: 각 사 및 언론 미디어 자료 종합, Thomson Reuters

P2P 대출 플랫폼

“
2010년 10개
플랫폼에서
2015년 1,540개
플랫폼으로 급성장

중국 P2P 대출 산업은 2007년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전직 엔지니어가 설립한 PPDAI를 시작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금융감독 당국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P2P 대출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중국 P2P 대출 거래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2,528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누적 거래금액은 3829억 위안을 기록했다. 업체 수는 도입기인 2010년에 10개에서 2015년에는 1,540개사로 크게 증가했다.

2015년 기준으로, 주요한 P2P 대출기업은, 거래액 기준 1~5위인 Hongling Capital, Lufax, Wzdai, Xinhehui, Srong이다. 앞서 언급한 중국 최초의 업체인 PPDAI는 선두 주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중국 금융 당국으로부터 금융정보서비스 사업자로서 공식인가를 받았으나 2015년 현재 후발주자들에게 밀려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점유율 1위인 Hongling Capital은 2009년 설립되어 가장 오래된 P2P 대출업체 중 하나로서 꾸준히 성장했다. Hongling Capital은 2014년의 거래액이 146억 위안으로서 점유율 22%를 확보하고 있다. 중국에서 최초로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한 기업으로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Lufax는 중국 최대 보험사인 핑안(PingAn) 보험그룹의 자회사로 모기업의 안정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특이한 점은 2012년 2,400만 달러 규모에서 2013년 5억 3천 달러 규모로 성장해 2100%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CreditEase와 Lending Club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이다.

핀테크, 앞서가는 중국 따라가는 한국

하지만 P2P 대출시장의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서 1,500여 개 가량의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남에 따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주식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담보제시능력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자금을 공여하는 등의 부작용이다. 이러한 영업 형태는 주식시장의 거품 붕괴 시, 다수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 금융당국은 P2P 대출시장의 과열 경쟁에 대응해 새로운 감독 규정을 2015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P2P대출 주요 Players>

중국 P2P 대출 플랫폼					
기업명	Hongling Capital	Lufax	Wzdai	Xinhehui	Srong
시장 점유율	1위 (22%)	2위 (16%)	3위 (15%)	4위 (9%)	5위 (8%)
거래액(억 위안)	¥ 146.5	¥ 105.4	¥ 104.7	¥ 60.5	¥ 57.5
투자자수	77,216	2,390	19,241	33,293	15,628
차입자수	7,878	186,985	1,815	2,319	1,008
평균수익률	14.55%	8.54%	15.77%	10.21%	18.93%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계 최초로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최대 보험사인 평안보험그룹의 자회사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입자수는 가장 낮지만 높은 거래액을 기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많은 투자자수를 유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

Source: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KOTRA, 각 사, KPMG 재구성



핀테크, 앞서가는 중국 따라가는 한국

중국 핀테크의 자생적 성장배경

중국 핀테크 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다섯 가지 배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1) 금융시장의 비정상적인 금리 상황
- 2) 소비자-판매자간 신뢰부재
- 3) 모바일 인터넷사용자 급증
- 4) 신용카드 보급률 미미
- 5) 핀테크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

1) 금융시장에서의 비정상적 금리 상황



중국 정부의 금리수준 통제가 핀테크에 틈새시장 공략 기회 마련

사회주의 경제체제인 중국은 1990년대 이전까지 국유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국유은행의 예대마진을 확보하려고 예대금리를 규제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금융시장 개방을 위해서 중국은 금리자유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채권 및 단기금융시장의 금리는 자율화가 이루어지고 대출금리도 자유화되었지만, 오직 예금금리에만 여전히 규제가 가해지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이 예금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에 가산할 수 있는 범위를 기준금리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현재 시중 은행은 2% 후반의 낮은 예금금리를 제시하였다. 중국의 예금금리는 2007년 큰 폭으로 하향된 후, 2011년 최고점을 찍고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다. 반면 머니마켓 금리는 2009년 이후 최근까지 급격하게 상승하여 예금금리를 초과했다. 이러한 중국의 비정상적 금리는 핀테크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결정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이에 핀테크 기업인 알리바바는 머니마켓 펀드(MMF)와 유사한 위어바오(余额宝)를 출시하여 고객들에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고객기반을 확대했다. 인터넷서비스 업체인 텐센트도 위어바오와 유사한 모델인 리차이통(理财通)을 출시해 위어바오와 함께 업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랫동안 고금리 수익에 목말랐던 시장의 수요를 정부 및 시중 은행들이 아닌 핀테크가 해결한 것이다.

<중국의 예금금리, 머니마켓금리 vs. 핀테크 기업의 금리 비교>

금리	'07	'08	'09	'10	'11	'12	'13	'14	핀테크	금리
예금금리	4.1	2.3	2.3	2.8	3.5	3.0	3.0	2.8	리차이통	6.37
MMF 금리	3.4	4.3	1.7	2.7	5.3	4.6	5.0	5.1	위어바오	5.19

Source: EIU, 각사, KPMG ERI Analysis

핀테크, 앞서가는 중국 따라가는 한국



핀테크, 중국의 소비자-판매자 간 신뢰 견인

2) 소비자-판매자간 신뢰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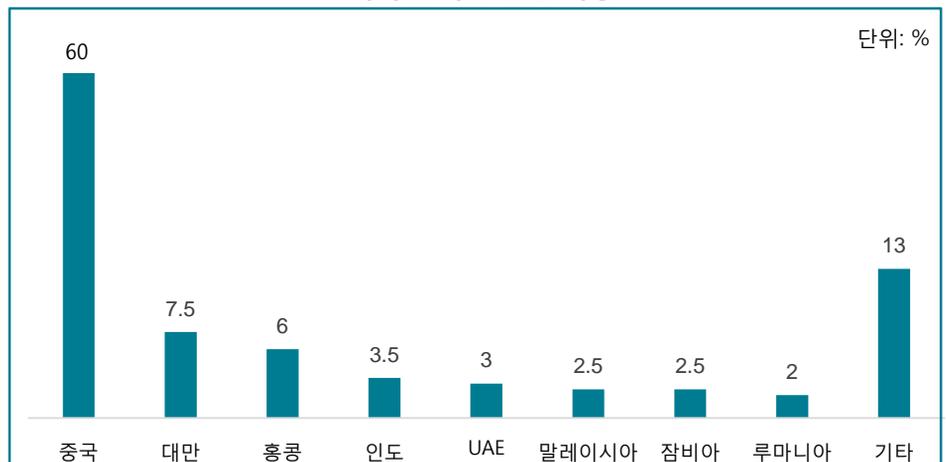
전세계 가짜 상품의 60%가 중국에서 생산된다고 한다. 중국에서 소비자와 직접 닿는 소매시장에서 가짜 혹은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3억 중국인의 대표적인 기호식품 중 하나가 만두이다. 이런 만두 안에 인체에 유해한 첨가제를 넣어서 판매한 ‘첨가제 만두’ 사건은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게다가 첨가제 만두를 판매한 곳이 대형마트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이 뿐만 아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에서 가짜 약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20만 명에 달하며, 신생아가 먹는 분유조차 멜라민을 첨가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처럼 중국 소매시장에서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신뢰 부재는 심각한 시장의 불안을 초래한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인들의 삶 속에 온라인 지급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Alipay)가 도입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판매자 및 소비자 간의 신뢰가 높아졌다.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받은 후에 구매를 결정하면 비로소 지불이 완료되는 알리페이의 시스템은 상품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만족스럽지 않은 상품을 반품할 수 있다는 것은 사건이 터졌을 때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짜 상품으로 인한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알리바바, 타오바오와 같은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들도 가짜 상품들의 존재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4년 중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조사에 따르면 중국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40% 정도가 가짜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자상거래 기업은 신뢰제고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가품 생산 비중>



Source: 조선비즈



중국인의 주요
핀테크 활용수단은
모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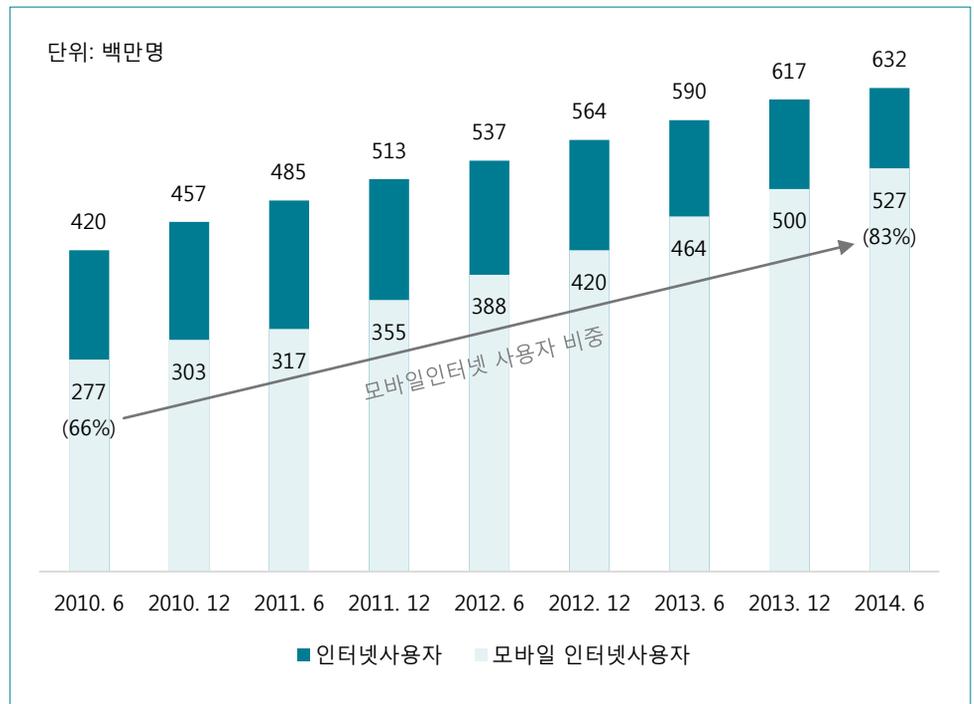
3) 모바일 인터넷사용자 급증

중국의 인터넷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상반기 기준 6억 3200만 명을 기록했다. 특히 모바일 인터넷사용자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1년 이후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사용자는 빠르게 증가했다.

2011년 상반기 2억 7678만 명에서 2014년 상반기 두 배 가량 증가한 5억 2705만 명을 기록했다. 전체 인터넷사용자 중에서 모바일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중이다. 2011년 상반기 66%, 2014년 상반기에는 83%를 상회했다.

중국의 핀테크는 급증하는 모바일 인터넷을 매개체로 그 동안 다가갈 수 없었던 곳까지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다. 오랜 동안 사람과 사람 간의 직거래만을 해오던 중국인들은 이제 모바일을 통해 쇼핑을 하고, 결제를 하며 심지어 금융상품을 통한 재테크도 모바일을 통해서 한다. 사람들의 편리함에 대한 갈증을 이제 모바일 인터넷이라는 통로를 통해 단번에 해소한 것이다. 물론 핀테크가 그 주인공이다.

<중국 인터넷, 모바일인터넷 사용자 변화 추이>



Source: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4) 신용카드 보급률 미미



중국인들의
신용카드 보유는
10명당 3장에 불과

신용카드 활용이 미미한 중국의 결제 환경은 핀테크의 자생적 성장을 가능하게 만든 중요한 원인이다. 중국의 전체 은행카드 발급 규모는 2015년 현재, 47억 4600만 장이다. 이 중에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서 4억 3600만 장으로서 약 9% 정도이다. 즉, 중국의 1인당 평균 신용카드 보유량은 0.32장으로 한국의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이 3.52장(2014년 기준)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은 중국의 결제시장에서, 핀테크의 발전으로 인해 고객들은 매우 편리한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특히 전자상거래 영업을 하던 알리바바는 현금으로 결제를 할 수 밖에 없던 소비자에게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알리페이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는 결제시장에 있어서 변화를 주도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중국정부 역시 결제시장 개선을 위해 2015년 6월 은행카드(신용카드 포함) 결제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은행카드 산업에 새로운 경쟁자를 진입시켜서 경쟁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고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경쟁의 강화 속에서 향후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막대한 고객 기반과 자금력을 앞세워 단기간에 오프라인 결제 네트워크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중앙은행을 통한 온라인 결제시스템에 진입하고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알리바바 그룹의 중국국영은행 및 금융자본의 흡수를 통해 금융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5) 핀테크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

중국 정부의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가 중국에서 핀테크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요소라고 판단된다.

“
중국 정부,
'핀테크는 미래의
성장동력'

중국 교통은행의 수석경제분석가인 렌핑에 따르면, 중국은 핀테크 사업이 시작된 2012년부터 관리 및 감독에 대한 다음의 2가지 원칙을 고수했다고 한다. 첫째, “창의적인 신성장 동력을 보호하면서 시장의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시장적 규제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과 둘째 “금융시장의 기본적 규율을 따르도록 만듦으로써 구조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핀테크에 대하여 시장의 자율성에 기반한 성장을 도모하려 한다는 것이다. 규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존 금융기업들과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미시적인 규제보다는 거시적인 규제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핀테크 규제에 있어서 창의적인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미시적인 규제를 삼가하려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리더들도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 리커창 총리는 텐센트의 인터넷 전문은행 '위뱅크(微衆銀行, WeBank)' 출범 기념 행사에 참석했고 첫 번째 고객이 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시진핑 주석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서 핀테크를 도입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이 지난 6월 15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핀테크 관련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중국 정부의 긍정적인 태도는 핀테크 선진국으로서 중국이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핀테크, 앞서가는 중국 따라가는 한국

국내 핀테크의 현재

중국은 기존 금융서비스 수준이 낮았고, 소매시장에서는 판매자와 소비자간 불신이 큰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중국은 핀테크가 가진 편리함에 대한 시장 수요가 매우 컸다. 더불어 13억이라는 인구와 모바일의 높은 보급률은 중국의 핀테크 산업을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질적 측면에서 중국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규정한다면 이는 편리함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대한 수요를 기반으로 핀테크가 기존 금융 서비스를 분해하고 이를 다시,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로 대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국내 핀테크는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 일단, 인터넷과 모바일 보급률과 활용도가 높은 것은 중국과 비슷하다. 하지만, 소매판매 영역의 고도화된 서비스 수준과 더불어, 수준 높은 IT 기술을 토대로 고객의 만족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제공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를 감안하면, 중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금융서비스를 해체하는 특징을 갖는 핀테크가 발전할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글로벌 차원에서 나날이 발전하는 핀테크는 이미 간과할 수 없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로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핀테크 도입을 위한 정책으로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수요에 의해 발전한 중국의 핀테크와 달리 국내 핀테크는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추진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 인터넷 및 모바일의 높은 보급률

IT 강국인 한국의 온라인 환경은 친핀테크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터넷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모바일 인터넷 속도도 빠르게 진화하여 Giga LTE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국내 온라인 금융서비스 환경은 선진 인프라 환경을 기반으로 높은 수준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은 핀테크 산업에서의 주요 선진국들과도 대등한 수준이며, 속도, 콘텐츠 등 환경 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인터넷 및 모바일 बैं킹의 발달 및 높은 활용률

약 18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국내 인터넷 बैं킹은 1997년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면서 활성화 되었다. 도입 초창기에는 텔레뱅크 및 ATM 등이 비대면 채널로서 주로 활용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인터넷 बैं킹의 활용도 빠르게 증가했다.

오랜 역사만큼 국내 인터넷 बैं킹은 글로벌 주요 선진국들과 견주어도 매우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3년 GMI NPS 설문 조사 결과에서 3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체 은행업무에서 인터넷 बैं킹 활용 비중이 56%로 나타나서 전체 3위를 기록했다.



IT강국 한국, 친 핀테크 환경이 구축되어 있음

핀테크, 앞서가는 중국 따라가는 한국

핀테크가 활성화된 중국은 60%로 1위를 기록했다. 나머지 국가들을 살펴보면 스페인 49%, 미국 45%, 프랑스 37%, 영국 33%, 일본 2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 우리나라보다도 인터넷 뱅킹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뱅킹의 역사는 미국, 영국 등이 더 오래되었지만 그 활용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인구를 보유한 중국이 오히려 더 높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3) 높은 기술력에 의한 금융서비스 제공

국내 많은 기업들이 핀테크 열풍에 대응해 기술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예를 들어, 보안분야에서 간편결제와 2채널 인증을 할 수 있는 솔루션, 홍채로 본인인식과 결제가 이루어지는 기술, 안면인식 기술 등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자산관리 분야에서는 계량적 분석을 통한 종목분석 솔루션, 글로벌 B2B를 상대로 한 통합자금관리시스템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핀테크에 빅데이터를 접목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 중이다.

높은 기술력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풍부한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핀테크 산업은 아직까지는 규제로 인해서 발전에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최첨단 기술력을
통한 핀테크 도입
준비 완료





‘인터넷전문은행’

국내 핀테크의 첫걸음

4)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완화

앞에서 살펴봤듯이 국내 핀테크는 우수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금산분리와 같은 엄격한 규제 및 법률적 제약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힘들었다. 이에 국내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규제 내용을 대폭 완화했다. 규제의 핵심적인 부분이던 금산분리 원칙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 대폭 완화됐다.

기존 4%로 제한하던 산업자본의 지분취득을 5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61개 기업 해당)은 대상에서 제외하여 대기업 기반의 은행 설립을 제한하는 내용을 첨부했다. 최소자본금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000억이 아닌 500억으로 낮추고 영업범위도 은행과 동일하도록 했다.

특히 신용카드 영업을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하여 기존의 규제(30개 이상 점포, 300명 이상 임직원 고용)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실명확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대면 방법을 허용하도록 했다. 현재 정부는 2015년 하반기까지 1~2곳의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부내용	
소유구조	•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보유도를 50%까지 허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
영업범위	•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업무범위 적용 (오프라인 대면 영업 방식은 제한)
최저자본금	• 시중은행 대비 절반수준인 500억원
인가기준	• 혁신성, 안정성,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 경쟁력 강화에 기여 및 해외 진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
건전성규제	• 주요 건전성 기준은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전산설비	• 외부위탁 가능
실명확인	•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허용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수령주소 확인 등)
인가절차	• 연내 1~2개 시범 사업자 선정 후, 추가 선정

Source: 금융위원회, KPMG ERI 재구성

핀테크, 앞서가는 중국 따라가는 한국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준비하는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있다. 기존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이 인터넷 전문은행 시범모델인 위비뱅크를 출시하면서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점 거점이 약한 IBK기업은행과 부산은행은 영업거점 확보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증권에서는 온라인 기반으로 성장한 키움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이 과거 축적한 노하우를 토대로 설립을 추진 중이다. 미래에셋증권도 전담 TF를 통해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CT기업 중에서는 다음카카오와 KG이니시스가 가장 적극적이다. 다음카카오는 최근뱅크월렛,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작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KG이니시스는 제 3자 결제 경험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준비현황>

분야	기업명	본업	비고
제1 금융권	우리은행	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시범모델인 위비뱅크 설립
	기업은행	은행	모바일 통합 플랫폼 i-원뱅크 출시
	BNK금융지주	은행	롯데그룹과 합작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인허가 신청 예정
제2 금융권	미래에셋증권	증권	TF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준비 중
	이베스트증권	증권	컨소시엄 및 독자설립 등 다양한 전략 준비 중
	키움증권	증권	모기업인 다우기술과 함께 진출 준비 중
ITC 기업	다음카카오	메신저 서비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적극 추진, 내부 TF 운영
	KG이니시스	결제 대행 서비스	엔씨소프트와 합작하여 진출 준비 중
	다날	결제 대행 서비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추진 중
	SK C&C	IT 서비스	인터넷 전문은행 플랫폼 개발 착수
	인터파크	온라인 쇼핑몰	긍정적으로 검토 중
	네이버	검색 포털 서비스	진출 검토 안함. 간편결제 및 송금 서비스에 집중

Source: 언론종합, KPMG ERI 재구성

핀테크, 앞서가는 중국 따라가는 한국

국내 핀테크의 미래



**인터넷전문은행
생존, 모기업활용
전략 필요**

대형 모기업을 가진 인터넷 전문은행들 위주로 시장이 형성될 것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금융선진국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성공적인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대부분 대형 모기업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이는 이들 기업이 모기업의 장점을 활용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이 성공전략임을 시사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활성화된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모기업들이 대형 은행, 대형 비금융기업, 대형 ICT 및 유통기업들이다. 미국의 경우도 모기업들이 대형 은행, 증권, 보험, 자동차 회사들이다. 이들의 설립 자본금을 살펴보면 국내 시중은행 설립 시 최소자본금 규모인 1,000억 원을 상회한다. 이는 고객에게 신뢰를 주기 위하여 높은 자본금 수준을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에서 설립된 위뱅크나 마이뱅크도 ICT 대기업인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설립한 인터넷 전문은행이다.

이와 같은 해외 사례처럼, 국내에 설립되는 인터넷 전문은행도 대형 모기업을 배경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모기업을 통한 고객의 신뢰도 제고도 필요하지만 설립 초기부터 운영이 안정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무 능력이 있는 모기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리 최소자본금 500억 원을 갖추었다고 해도 대형 모기업의 지원이 없다면 이익을 내는 시기까지의 긴 기간을 견디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대형 기업 위주의 인터넷 전문은행만이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금융회사들과 ICT 기업들의 협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

인터넷 전문은행의 해외사례처럼, 핀테크 산업에서 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증권, 보험, 카드 및 여신전문회사와 같은 비은행 금융권을 중심으로, 보안, 빅데이터, 플랫폼, SNS등과 같은 기술을 가진 ICT기업과의 협업이 매우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노하우를 가진 기업을 중심으로 ICT를 활용할 수 있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요구에 더 빨리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개별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신뢰가 중요한 금융업에서 보안솔루션을 통해 나날이 발전하는 피싱사기에 대처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고객정보를 보유한 인터넷플랫폼이나 SNS의 경우에는 자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성공했던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모기업의 고객을 기반으로 금융상품을 교차 판매하는 전략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던 사례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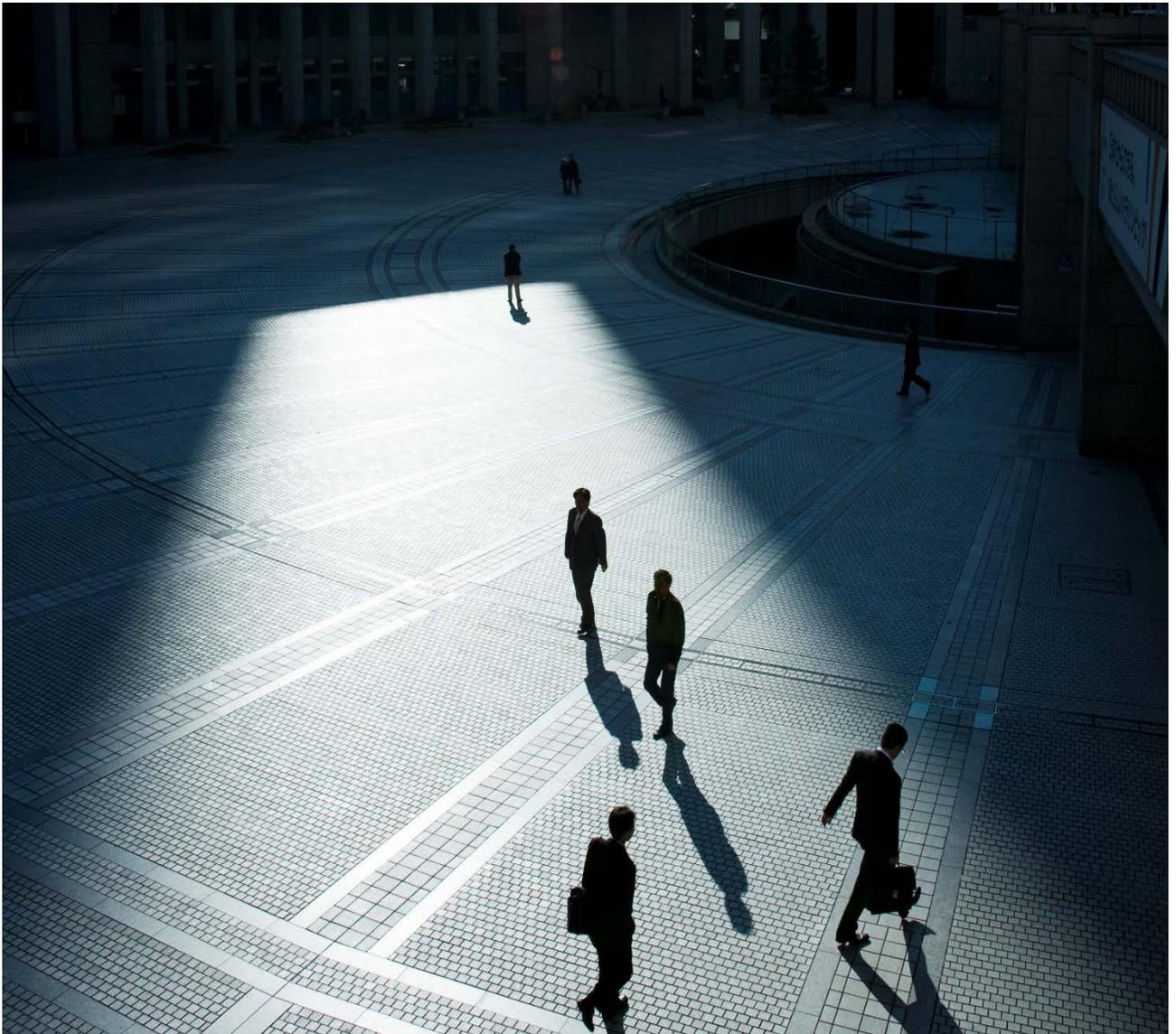


**'금융+IT'의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

핀테크, 앞서가는 중국 따라가는 한국

기존 은행들도 스스로 핀테크 기업과 제휴하거나 육성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Barclays가 핀테크 센터인 Accerlator를 설치해 핀테크 기업들을 자체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다. UBS는 Innovation Spaces라는 센터를 설치해 유망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미국에서는 Wells Fargo 은행이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씨티은행은 전문 벤처캐피탈을 통해서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한, KB, 우리, 하나, IBK, NH 등 대형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핀테크 기업과 협업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 대형금융지주는 빅데이터, 보안, 인증 기술을 보유한 국내 핀테크와 제휴를 도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핀테크와의 제휴 기회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 핀테크 센터를 설치해 우수 핀테크 기업 조기발굴을 통한 상생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핀테크, 앞서가는 중국 따라가는 한국

시사점

2014년 말 기준으로, 위어바오의 온라인 MMF 펀드의 운용자금이 1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가입자 규모는 무려 1억 8,500만 명에 달한다. 불과 3년 만에 나타난 수치이다. 미국과 영국 등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핀테크 산업은 금융서비스가 다소 낙후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만개하는 중이다. 과거 선진국들의 금융산업 발전속도를 감안하면 중국의 금융서비스 분야는 최근 핀테크를 통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 핀테크는
시장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성장 중

이러한 중국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무엇보다도 자생적이라는 점이다. 기존 금융서비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으로 인해서 IT 기술 중심의 핀테크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시장에 나타났다.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도입은 사실상 필요치 않았다. 이러한 핀테크의 발전을 면밀히 지켜 보는 중국 정부의 금융시장 감독 원칙만 필요했을 뿐이다.

그런데, 국내 핀테크 시장은 이제 막 태동한 상황이다.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술적 환경은 충분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서비스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기존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글로벌 핀테크 시장의 성장 속도와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핀테크 시장 관련 규제를 급변하는 환경에 맞추어서 적절하고 신속하게 변경해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핀테크가 자생적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원칙 중심의 규제환경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부작용을 우려하여 규정들을 강화하기보다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문제들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사후적으로 규제를 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영국 금융감독청(FSA)의 과거 사례를 참조한 것이다. 지난 2005년, 규제개선계획(Better Regulation Action Plan)의 수행 과정에서 원칙 중심의 규제환경을 조성하면서 기존의 규정 중심(detailed regulations) 규제를 지양하는 것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국내 핀테크,
규제완화에
부합하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필요

최근 우리 정부도 핀테크 산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규제 패러다임을 기존의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에 전환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법안과 더불어,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와 IT업체 간 공동책임분담의 허용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가급적 빠른 속도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 변화의 핵심은 시장 원칙에 따른 기업들의 자율성 강화라고 볼 수 있다. 핀테크 관련 기업들이 이러한 시장 친화적 규제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제 국내 핀테크는 See and do it이 아니라, Just do it을 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삼성KPMG 경제연구원

김범석

원장

T: 02-2112-0770

E: edwardkim@kr.kpmg.com

이광열

상무이사

T: 02-2112-0062

E: kwangryeolyi@kr.kpmg.com

김기범

책임연구원

T: 02-2112-7600

E: kkim20@kr.kpmg.com

박광빈

선임연구원

T: 02-2112-3849

E: kwangbinpark@kr.kpmg.com

www.kr.kpmg.com

© 2015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logo and "cutting through complexity"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